



# 박쥐인생

‘편복지역(蝙蝠之役)’ 또는 ‘편복불참(蝙蝠不參)’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편복은 박쥐를 의미하는 한자다. 박쥐의 구실, 혹은 박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헌설화는 『기문』과 『순오지』에 실려 있는데, 『순오지』에는 ‘박쥐구실’이라는 속담을 풀이하는 형태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화가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새들끼리 봉황을 축하하는 잔치에 박쥐만 빠졌다. 봉황이 박쥐를 불러놓고 “네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 거만할 수가 있느냐?”고 꾸짖었더니, 박쥐가 “나는 네발 가진 짐승인데 너 같은 새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나?”고 하였다.

그 뒤 기린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 네발짐승들이 다 모였으나 박쥐만이 오지 않았다. 기린이 박쥐를 불러 또 꾸짖었다. 그러자 박쥐는 “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네발짐승들의 잔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나?”고 하면서 날개를 펼쳐 보였다.

날짐승들이 모인 봉황의 잔치에 박쥐는 들짐승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으며, 들짐승인 기린의 잔치에는 날짐승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가리켜 박쥐에 비유한 것이다.

새와 짐승들은 모두 박쥐들을 외면하였다. 새도 짐승도 아닌 박쥐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새와 짐승들이 노는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새나 짐승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저녁이 되어서야 밖에 나와서 놀았다. 쫓대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박쥐 이야기는 설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박쥐의 성격이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박쥐의 생김새와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박쥐같은 인생을 사는 한심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간에 불었다 쓸개에 불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과거 모 정치인의 예를 보면, 자신의 대권을 위하여 A당에 불었다가 대권후보 경선에서 패하자 탈당하여 B당으로 당적을 옮겨 다시 대권후보에 도전하는 작태는 정말 구역질나는 추잡한 모습이다. 그런 지조 없는 행동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을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예로부터 국가의 안위는 뒤로한 채 당리당략으로 파벌싸움만 일삼다가 외침을 당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천신만고 끝에 다시 찾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므

로 정치인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계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발 빠른 정치로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기하고 발로 뛰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회의시간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력도 불사하며 회의나 모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회의란 그 단체의 공익을 위한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전체의 분위기를 위하여 어수선한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는 인내심이 필요한 자리이다. 회의 시간이나 논쟁 시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 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은 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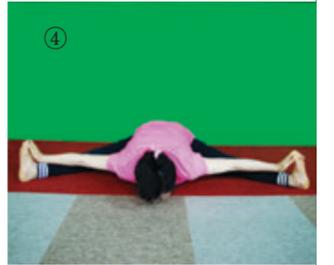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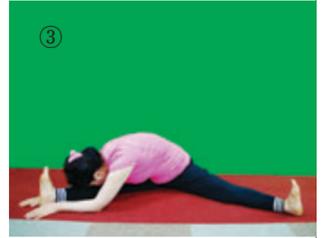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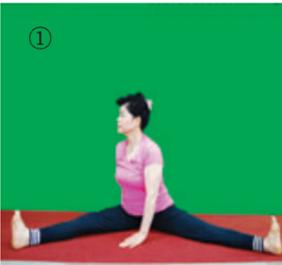
회의시간에는 가장 적극적인 듯 자기주장을 펼쳐 보이지만 말로만 떠벌리는 행동 없는 그 태도는 영락없는 박쥐인생이다. 쫓대 없고 지조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알뜰한 이익만 추구하는 박쥐인생이 되지 말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좋은 매너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

## 수다의 요가 교실

#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우리는 오랫동안 가름이 지속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다가도 단비가 내리면 가름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몸도 평상시 올바른 생활습관이 아픈 후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50배 효과가 높으니 꾸준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사노동은 쓰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가동작을 통해 평소엔 안 쓰던 근육이완과 수축을 반복해 보자. 편안할 때 번비되는 알파파로 심신이 웃게 된다.

### 혈액순환, 간, 신장을 좋게 하체를 아름답게



숨에 고개를 천천히 후굴한다.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3회.

**동작②:** 숨을 마시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천천히 전굴한다. 숨을 내쉬며 팔을 멀리 퍼준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3회.

**동작③:** 양다리를 능력에 따라 확장하고 엄지와 검지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숨을 마시며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전굴한다. 숨을 내쉬며 꼬리뼈 척추 경추를 길게 퍼준다. 10초 유지 5회.\*

### 박쥐자세

**효능:** 지친 간과 신장을 해독하는데 도움. 쌓인 노폐물을 걸러 주어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장기의 흐름을 활성화한다. 허벅지 안쪽과 오금 안쪽의 근력강화로 무릎과 허리의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성을 강화한다.

**주의:** 하체의 앞면 경직이 심한 경우 발끝을 멀리 보낸다. 뒷면 경직이 심한 경우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분은 전굴 자세를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동작①:** 양다리를 확장하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다. 상체를 우측으로 향하여 팔반을 들어준다.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10초 유지 양쪽 각3회.

**동작②:** 숨을 들이 마시며 내쉬는



## 名與身孰親

명여신 숙친

### 이름과 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한가

#### 도덕경44장 해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원초적으로 살고자 한다. 이러한 살고자 하는 의지, 본능은 인간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최대의 선과 의가 생명을 복돋우고 살찌우는 데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인간 최대의 선과 의가 되는 불로장생을 노자가 우리들에게 선물한다면 그것만큼 기록하고 값진 것은 없었다. 불로장생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꿈과 소망으로 간직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바로 노자는 인간의 여러 가지 가치 중 불로장생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고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피했던 도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무도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돈과 명예와 권력, 향락을 추구하느라 본래 주어진 천수(天壽)를 갉아먹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자세는 단 하루도 고요하고 편안할 날 없다. 우리가 보는데 어떠한 삶의 목표와 가치가 더 나은 것인지 각자 본인의 판단의 몫이지만,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은 재고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불로장생을 지향한 삶을 택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의 연장과 찬란한 생명의 향연을 위해 삶을 직시하고 통찰하여 깨달은 분이 노자다. 그래서 노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신의 탐욕한 삶과 자유를 구가하며 살 것인지, 또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불로장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도의 진수를 전하고자 하는 노자의 참 뜻을 헤아려 하나의 문장으로도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노자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실천하는 것은 어렵까.

**名與身孰親(명여신 숙친):** 이름과 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한가

**身與貨孰多(신여화 숙다):** 몸과 재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得與亡孰病(득여망 숙병):** 얻는 것

과 잃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병이 되는가

**甚愛必大費(심애필 대비):**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며

**多藏必厚亡(다장필 후망):** 많이 쌓아 놓을수록 반드시 많이 잃게 된다

**故知足不辱(고지족 불욕):** 고로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知止不殆(지지불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可以長久(가이장구):** 가히 이리써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 허만욱 승사 칼럼

## 인간은 물론 만물 전체가 신이다 만물이 원자다

인간은 물론 공기와 물, 나무, 동물 심지어는 돌이나 쇠붙이까지도 모두가 신이다. 물질이 이루고 있는 원소의 하나하나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영이다. 즉 원소의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그 돌레를 전자 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중성자를 육에 가두고 그 돌레를 마귀의 세력인 전자가 하나님의 힘을 역이용하여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백 여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귀출신물(鬼出神沒) 상태로, 마귀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으나, 일단 유사시에는 즉 긴장상태나 위급시 분은 참 기도를 드릴 때는 신출귀몰(神出鬼沒) 상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지배하게 된다. 이때에 비로소 기도의 뜻이 하나님께 상달 되는 것이다.

다만, 만약에 평소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출귀몰 상태를 유지시켜서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박멸소탕 하여야 양심의 영만 남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곳 승리제단에 와서 21일간 하나님의 수업을 받으면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마치 꿈과도 같은 일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삼대(三代) 적덕(積德)한 자손이라야 가능하지만 우선 21일간의 '영생학위'부터 따놓고 불 일이다. 참종교란 죽지 않아야(진리구현) 하며, 하나님으로 거듭나야(원시반본) 하므로, 상당히 고차원의 수행목표이지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하며,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한몸사상을 배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은 몸속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항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의젓하고 멋있게 생겼어도 근본적으로는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마귀' 라는 흑령을 피할 수

"미립자 차원의 우주에는 안도 없고, 바깥도 없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위와 아래 또한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정도령께서는 우주의 핵심인 영점공간(靈點空間)에 좌정하시어, "우리는 모두가 원자이므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계신다.\*



##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31)652-6438  
이죽제단 : (031)672-6786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총주제단 : 010-9980-5805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33-7866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광주제단 : (062)524-4555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금마제단 : (063)853-6673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Philadelphia : (215)722-2902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